


Leading Future with Creativity & Innovation			
 www.katech.re.kr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	인터넷, 방송, 통신 : 배포(수신) 즉시 보도 가능 일간지 지면 : 9.13(금) 조간 보도 요청		
배포일시	2024. 9. 12(목)	담당부서 글로벌협력단	담당자 박태현 선임(041-559-5999)

한자연, 전과정평가(LCA) 기반 친환경 소재 기술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

- 제12회 자산어보 개최...자동차 분야 LCA 정책과 탄소저감 소재 기술 총망라

□ 한국자동차연구원(원장 이승식 이하 한자연)이 글로벌 탄소중립 노력의 일환으로 전과정평가(Life Cycle Assessment, 이하 LCA)를 기반으로 한, 모빌리티 친환경 소재 기술 개발 동향 및 발전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.

* 전과정평가(LCA): 제품의 원료 채취 단계서부터 가공, 조립, 수송, 사용,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지는 환경영향을 정량화하고 평가하는 기법

- 한자연은 12일(목)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「LCA기반 탄소저감 소재 기술」을 주제로 제12회 자산어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날 행사에는 한자연 이순웅 기업성장본부 본부장을 비롯하여, KG모빌리티 이용현 상무, BGF에코머티리얼즈 이종수 상무, 알멕 임재철 이사, DN오토모티브 김태신 상무, 에코플라스틱 이종현 전무, 앤디포스 조서용 대표이사, 삼기 이형기 연구소장 등 모빌리티 산업관련 완성차사, 중소중견 부품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.

【제 12회 자산어보 행사 개요】

- 일시 및 장소 : '24.9.12(목) 14:00~16:40,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(서울 강남구 소재)
- 주제 : LCA기반 탄소저감 소재기술 (부제)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혁신, LCA기반 친환경차의 미래
- 주요 내용 : LCA 관련 주제 발표, 산업브리핑, 선도기업 4개사(현대차, 포스코, 알멕, BGF에코머티리얼즈) 발표, 참가기업 소개 및 자유 네트워킹, 한자연 신소재기술부문 부스 운영, 혁신 기업 부스(BGF에코머티리얼즈, 도원, 오후두시랩, 삼기) 운영

- 한자연이 주관한 자산어보 행사는 ‘자동차 산업을 어우르고 보듬다’의 약자로, 모빌리티 산업 구성원들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를 기반으로 유의한 정보를 공유하고, 구성원 간의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 네트워크 교류의 장이다.
- 이번 제12회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노력으로 자동차 분야의 LCA 정책과 탄소저감 소재 기술 현황 및 발전 전략에 대해 폭넓게 다뤄졌다.
- 구체적으로는 ▲LCA 국제 정책 동향과 나아가야할 방향(인하대학교 황용우 교수) ▲자동차용 소재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전망(한자연 김동욱 신소재기술부문 책임연구원) ▲자동차 분야 LCA 국내외 정책 동향(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임윤성 연구관) ▲선도기업 발표(현대차, 포스코, 알멕, BGF에코머티리얼즈) ▲참가기업 소개 ▲자유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.
- 아울러, 한자연 새시·소재기술연구소 산하 ‘신소재기술부문’의 연구성과·기술상담 컨설팅 부스 및 혁신 기업 4개사(BGF에코머티리얼즈, 도원, 오후두시랩, 삼기)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기술 교류와 신규 협력기업 발굴 지원에 앞장섰다.
- 한국자동차연구원은 “각종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, 자동차 분야에서도 LCA에 발맞춰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.”라며, “이번 행사에서의 산업 구성원 간 교류와 협력으로 LCA 기반 탄소저감을 목표로 소재기술을 개발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